국유림관리 공무원이 상습 투기

119차례 6억원 챙겨…임야 사들여 소속 관서에 되팔아

감사원 적발…골프장 인가 뇌물 군직원 등 3명도

사유림을 매수해 되파는 수법으로 무려 6억여원을 챙긴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과 골프장 조성사업의 인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은 화순군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과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영암관리소 직원 주모씨는 산림청에서 해마다 실시 중인 사유림 매수계획의 매수대상에 해당하는 구례·곡성·순천·화순 등지의 사유림을 미리 사들인 뒤 이를 국유림관리소에 되파는 수법으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119차례에 걸쳐 6억2천172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실제 주씨는 지난 2005년 12월 곡성군내 임야 28만5천322㎡를 1억원에 사들인 뒤 19일만에 영암국유림관리소에 1억2천100여만원에 팔아 2천100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주씨는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면서 평소 사유림 매수실태와 매수대상 임야의 감정평가액 수준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사유림을 소개받은 뒤 예상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 임야를 사들여 얼마 후 되팔았다.

주씨는 특히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처와 처형, 제수 등 3명 명의를 빌려 매입대상 사유림 8천635㎡를 매수해 짧게는 18일, 길게는 6개월 후 영암·무주·순천 등 3개 국유림관리소에 되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씨는 더구나 직장 상사로부터 이 같은 투기행위 중단 요구를 받자 매수자 명의와 산림청 관할 구역을 바꿔가며 투기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주씨의 행위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사유림 매매를 통한 부당 영리행위'를 이유로 산림청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기능직인 주씨는 감사원 징계요구에 따라 이미 지난 4월 해임돼 퇴직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6월 비리혐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화순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은 무등산골프장 인가 업무와 관련해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자격미달 업체로부터 각각 10만원권 상품권 2장과 3장 등 모두 5장을 받고 사업실시 계획을 인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자격미달 업체인 점을 알면서는 사업실시 계획을 인가처리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골프장 착공 전까지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 총 부지 154만5천240㎡ 가운데 11.6%인 17만8천530㎡를 확보하지 않은 업체에 인가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에 10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모내기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28일 오후 함평 학교면 곡창리에서 한 농민이 모를 심기 위해 모판을 옮기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률 광주·전남 전국 최고 수준

광주 2위 전남 4위

광주·전남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병식)는 지난 4월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광주에서 5천3명이, 전남에서는 1만2천832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요양보험 신청예상자를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5%로 볼 때 광주·전남지역 신청예상자는 2만2천300여명으로 전국 신청예상자 24만명의 9.3%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날 광주·전남지역의 실제 신청자는 1만7천835명으로 전국 신청자 13만4천명의 13.3%를 차지해, 타지역보다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신청예상자를 기준으로 신청률을 보면 광주는 5천691명의 신청예상자 가운데 5천3명이 신청을 마쳐 신청률 87.9%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도 신청예상자 1만6천589명 중 1만2천832명이 신청해 신청률 77.4%를 기록, 전국에서 네 번째로 신청률이 높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내 노인인구가 많은데다 소득도 낮아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신청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신청률 91.2%)→광주→전북(86.2%)→전남→강원(64.8%) 순이었으며, 낮은 지역은 서울(40.5%)→충남(41.1%)→대구(44.5%)→부산(48.0%)→충북(50.1%) 순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첫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 후에는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심의절차 등이 남아있어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 최종통보까지는 약 한 달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문의는 1577-1000번과 국번 없이 129번.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조선시대 판서 평균 임기 169일

관찰사는 1년…정승이 13개월로 가장 길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하고, 그래서 잦은 인사교체가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500년을 버틴 조선 왕조는 어떠했을까?

국민대 한국학연구소가 2005년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해온 '한국사상 관인·관직 DB구축과 관료제연구' 성과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조선시대 인사정책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중간 결과 일부가 28일 개최한 한국학연구소 주최 학술대회를 통해 공개된다.

이에 따르면 요즘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이 약간 못되는 355일, 장관에 해당하는 6조 판서는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고작 169일, 국무총리라 할 수 있는 삼정승은 13개월 정도인 390일이었다.

이는 특정 관료가 그 자리에 한번 임명되고 면직될 때까지 걸린 기간을 평균한 수치이므로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여러 번 취임하는 사례가 많은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나아가 관찰사는 17세기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렇지만 잦은 인사가 이른바 '책임 있는 행정'을 가로 막는다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인 현상을 보인다. /연합뉴스

전남지역 가뭄 해갈 호우주의보 해제

지난 27일 밤부터 광주·전남지역에 100㎜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전남 일부 지역의 가뭄이 해갈됐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빗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꼬를 낮춰주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부터 내린 비는 ▲진도 122.5 ▲해남 107 ▲여수 99 ▲장흥 88 ▲광주 81 ▲완도 81 ▲목포 78.5㎜ 등 대부분 지역이 100㎜에 가까운 비가 내렸다.

하지만 28일 오후부터 빗줄기가 약해져 광주·전남지역에 내려진 호우경보·주의보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일제히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은 '강우에 따른 농작물 관리요령'을 발표하고 농작물 관리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은 어린 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꼬를 낮춰 주고, 잠긴 벼는 잎의 끝만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빼주고, 고추, 수박, 참깨 등은 배수로를 정비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문화콘텐츠 연구원 광주에 설립을

범시민 지원기구 출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가운데 문화산업 선도의 핵심 축인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이하 CT연구원)을 광주에 설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범 시민기구가 출범했다.

광주지역 문화계와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CT연구원 광주 설립을 위한 '설립지원위원회'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위는 다음달 4일 문화산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포럼을 갖는 등 설립 지원을 위한 여론형성, 대안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위는 "범 시민기구 활동을 통해 설립 무산을 막고 시민들의 의사 결집, 연구원 설립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